

## 「경복궁도」 제작 시기와 배경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ion Period and Background of *Gyeongbokgungdo*

홍 현 도\*

Hong, Hyeon-D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Abstract

*Gyeongbokgungdo* depicts the composition and layout of Gyeongbokgung Palace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well as a monument related to pro-jamrye held at the site of Gyeongbokgung Palace in Yeongjo. Based on literature such as Dongguk Yeoji Seungram, such as *Gyeongbokgungdo* painted major buildings, government offices, and buildings in the backyard. In addition, the literature and the foot of the mountain, waterway, and Pond, which were identified as the site identified during the reconstruction process, are reflected, and some of the *Gyeongbokgungdo* contain reconstruction records. As such, *Gyeongbokgungdo* depicts Gyeongbokgung Palac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facilities built after the Imjin War based on the literature, and seems to have been produced around the time of reconstruction as it reflects the mountain and water system. In addition, the layout of the main hall of *Gyeongbokgungdo* was partially reflected in the reconstructed Gyeongbokgung Palace and used as a material to understand the layout of Gyeongbokgung Palac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주제어 : 경복궁, 중건, 건물 배치, 내막, 수계

Keywords : Gyeongbokgung palace, Rebuilding, Building layout, Ridge, Water system

## 1. 서론

## 1-1. 연구 목적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의 건물구성을 알기 위한 그림은 여러 차례 그려졌다. 영조대 유득공이 경복궁을 찾았을 때 경복궁 위장소에 있는 「궁도(宮圖)」를 통해 경회루 칸수와 궁성문 이름을 확인하였으며,<sup>1)</sup> 영조는 경복궁 위장이 그린 「구궐도(舊闕圖)」를 통하여 교태전 등의 전각 터를 찾아보기도 했다.<sup>2)</sup>

현재 남아 있는 「경복궁도」는 임진왜란 이전 경복궁의 전각 구성과 배치와 함께 영조대 경복궁에서 행해진 친잠례와 관련한 정해친잠비와 채상대를 그린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경복궁도」를 문헌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고종 대 경복궁 중건 당시 경복궁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에 따른 「경복궁도」의 제작 시기 및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검토

「경복궁도」와 관련하여 이강근, 주남철, 조재모, 이규철, 한동수 등의 글이 있다.<sup>3)</sup> 이들은 대체로 「경복궁도」의 제작시기를 「경복궁도」에 표시된 정해친잠비와 관련하여 영조 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중 이강근과 이규철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강

\* Corresponding Author : h-syong@hanmail.net

1) 유득공, 「춘성유기」, 『영재집』 권15. “...復出宮圖考之慶會樓凡三十五間宮之南門曰光化北門曰神武西曰延秋東曰延春”.

2)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9월 13일 임오.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19일 계축.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3일 정사.

3) 이강근, 『景福宮에 관한 建築史的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83.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1999.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2000.

조재모, 전봉희, 「고종조 경복궁 중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6 No.4, 대한건축학회, 2000.

이규철, 「고종 중건과 대한제국 말기까지의 변화 고찰」, 『경복궁 변천사 상(上)』, 문화재청, 2007.

한동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경복궁도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근은 「경복궁도」의 제작 시기를 친잠비가 치러진 1767년을 하한으로 고종대 경복궁 중건의 기초조사작업 중 하나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규철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경복궁도」의 중건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해당 「경복궁도」의 제작 시기를 만춘전 상량일(1865년 2월 2일)과 근정전 정초일(1866년 8월 25일) 사이로 추정하였다.

표 1. 선행 연구에서 「경복궁도」 추정 제작 시기

구분	대상자료	제작 연대 추정
이강근	「경복궁도 2」	정해친잠비가 건립된 1767년 하한 <sup>4)</sup>
	「경복궁도 2」 「경복궁도 5」 「경복궁도 9」 「경복궁도 10」	정해친잠비(1767)와 채상대가 있으나 문소전구기비(1772)가 없어 1767년에서 1772년 <sup>5)</sup>
	「경복궁도 9」 「경복궁도 10」	흙경각이 건립된 1438년 이후 경복궁을 바탕으로 정해친잠비(1767)와 채상대가 있으나 문소전구기비(1772)가 없어 그사이 <sup>6)</sup>
	「경복궁도 6」	영조 이후 <sup>7)</sup>
이규철	「경복궁도 1」	만춘전 상량일(1865년 2월 2일)과 근정전 정초일(1866년 8월 25일) 사이 <sup>8)</sup>
	「경복궁도 3」	선원전이 표기되지 않음 임진왜란 이후~고종 4년 <sup>9)</sup>
한동수	「경복궁도 10」	정해친잠비가 친잠비로 표시되어 있어 친잠비 건립 이전인 1770년 <sup>10)</sup>

이 외에 건축사와 관련된 분석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에서 「경복궁도」에 표시된 간의대, 일성정시의 등 천문 시설과 관련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sup>11)</sup>

4) 이강근, 앞의 논문, 74~80쪽, 1983.  
 5) 이강근, 앞의 책, 42쪽, 1999.  
 6) 주남철, 앞의 책, 212~215쪽, 2000.  
 7) 조재모, 전봉희, 앞의 논문, 32쪽, 2000.  
 8) 이규철, 앞의 글, 51쪽, 2007.  
 9) 이규철, 앞의 글, 48쪽, 2007.  
 10) 한동수, 앞의 논문, 95~98쪽, 2014.  
 11) 남문현, 「간의대의 어제와 오늘」, 『고궁문화』 No.2, 국립고궁박물관, 2008.  
 정연식, 「조선시대 관상감 관천대와 경주 첨성대의 입지조건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No.60, 2010.  
 김상혁 외, 「조선 간의대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천문학회보』 Vol.6, No.1, 한국천문학회, 2011.  
 문병희, 『조선전기 천문관측기기와 역법의 연구』, 충북대학교, 2016.

1-3. 연구 대상

현재까지 확인되는 「경복궁도」는 서울역사박물관 4점, 국립민속박물관 2점, 국립중앙도서관 2점 등 총 14점이 있다. 이 중 명칭이 표기된 것은 7점으로 「경복궁전도」, 「경복궁도」, 「경복궁지도」, 「경복궁도형」 등이며, 소장처에 따라 대장에 등록된 이름 역시 표기된 명칭을 그대로 따르거나 「경복궁」, 「경복궁전도」등으로 되어 있다.<sup>12)</sup>

「경복궁도」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경복궁도 1」로 세로 102.3cm, 가로 71cm이며, 가장 작은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복궁도 2」로 세로 55.8cm, 세로 34.6cm이다.

대부분 「경복궁도」는 먹으로만 건물을 그리고 명칭을 적었으나, 일부는 내막, 수로 등 부분적으로 채색한 예도 있다.<sup>13)</sup>



그림 1. 「경복궁도 1」    그림 2. 「경복궁도 2」    그림 3. 「경복궁도 3」  
 그림 4. 「경복궁도 4」    그림 5. 「경복궁도 5」    그림 6. 「경복궁도 6」  
 그림 7. 「경복궁도 7」    그림 8. 「경복궁도 8」    그림 9. 「경복궁도 9」

12) 본 글에서 서술 편의를 위해 「경복궁도」로 명칭을 통일하고 형태의 유사성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였다.  
 13) 「경복궁도 4」, 「경복궁도 5」, 「경복궁도 9」, 「경복궁도 12」

표 2. 현존 「경복궁도」 비교

번호	유물명	표기 명칭	크기(세로×가로)	소장처	비고
1	경복궁도	-	104×69.6(전체) 99.3×60.3(주지)	서울역사박물관	경복궁역 밖 산맥과 주요시설 표현 주요 전각 영건일 표기
2	경복궁지도	景福宮地圖	56×43	국립중앙도서관	「경복궁도 1」과 유사
3	경복궁도	-	131.5×75.3(전체) 102.3×71.0(주지)	서울역사박물관	우측 부분 훼손
4	경복궁도	景福宮圖形	126×68.5(전체)	국립민속박물관	일부 채색
5	경복궁도	-	79.7×53.2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채색
6	경복궁고도	景福宮古圖	74.3×50.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청사진, 전각 형태
7	경복궁도	-	159.8×47.9(전체) 61.4×36.6(주지)	서울역사박물관	일부 채색
8	경복궁전도	景福宮全圖	미확인	개인소장 <sup>14)</sup>	
9	경복궁전도	景福宮全圖	미확인	삼성출판박물관	일부 채색
10	경복궁도	-	107.5×68(액자)	국립민속박물관	전각 형태, 일부 채색
11	경복궁도	-	74.3×50.2	미확인 <sup>15)</sup>	전각 형태, 일부 채색
12	경복궁도식	景福宮圖式	55.8×34.6	서울역사박물관	궁성 주변 민간 훼손 칸수, 금액 표기 궁성과 주요 전각 영건일 표기
13	경복궁도면 <sup>16)</sup>	-	미확인	미확인	광화문 남쪽 건물 표기



그림 10. 「경복궁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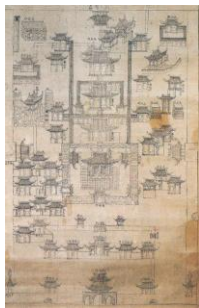


그림 11. 「경복궁도 11」



그림 12. 「경복궁도 12」



그림 13. 「경복궁도 13」

## 2. 문헌과 「경복궁도」 내 건축물 비교

「경복궁도」의 건축물들 대부분은 문헌을 바탕으로 소실 이전의 상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소실 이전 경복궁을 기록한 문헌으로는 대표적으로 『신증동국여지

14) 이강근의 『경복궁』에서는 개인(강릉시)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복궁 침전지역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강릉시립박물관 소장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립박물관에 연락 결과 해당 「경복궁도」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15) SOTHEBY'S, 『Korean Works of Art』, 1997.

16) 문화재청,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문화재청, 2006, 79쪽.

승람』과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가 있으며, 소실 이후부터 중건 이전까지의 문헌으로 『한경지략(漢京識略)』, 『어제 궁궐지(宮闕志)』<sup>17)</sup>, 『궁궐지(宮闕志)』<sup>18)</sup> 등이 있다. 중건 전후 문헌은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와 『경복궁지(景福宮志)』<sup>19)</sup>, 『(경복궁)영건일기』 등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문헌자료와 「경복궁도」에 표현된 경복궁 건축물 구성과 배치를 비교하여 「경복궁도」의 제작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궁성과 궁문

문헌에서 궁성과 관련한 기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은데, 경복궁의 위치를 경성 중앙으로 적고 있으며, 그 둘레를 1,813보, 높이를 21척 등으로 적고 있다.

표 3. 문헌에서 경복궁성의 위치와 규모

구분	규모
세종실록지리지	周回一千八百十三步
신증동국여지승람	周一千八百十三步 高二十一尺一村
한경지략	周一千八百十三步 高二十一尺

「경복궁도」에서 궁성 규모가 표시된 것은 9점으로 이중 「경복궁도 13」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8점의 「경복궁도」에서 기록된 궁성 규모는 둘레가 아닌 동서, 남북으로 쓰여있으며, 동서는 약

17) 『어제궁궐지』, K2-4363, 한국학중앙연구원.

18) 『궁궐지』, K2-4360,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경복궁지』, 古5120-3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540척, 남북은 2,787척이다. 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동서 약 466m, 남북 약 844m로 이는 실제 경복궁 규모와 유사하다.<sup>20)</sup>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동서, 남북의 길이로 경복궁 규모를 표기한 것은 문헌이 아닌 실제 경복궁 크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 내 나무는 벌목이 금지되어,<sup>21)</sup> 주요 건물지가 위치한 북쪽 지역은 송림(松林)을 이루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경복궁의 규모는 경복궁의 내부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측정되었을 것이다.

표 4. 「경복궁도」에 기록된 궁성 규모

「경복궁도」 번호	동서	남북
1, 2	1,500장	2,500장
3, 4, 5, 6, 8, 12	1,540척	2,787척
7	1,546척	2,747척
미터 변환	459~473	765~852.8

표 5. 실제 경복궁 규모

방향	대상	미터	척 변환
동서	동십자각-서십자각	465.5	1,536척
	건춘문-영추문	468.5	1,546척
남북	광화문-정북방	860.6	2,840척
	서십자각-추성문	815	2,689척

궁문과 관련하여 문헌별 표기 순서와 서술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경복궁도」의 궁성문 명칭과 표시 위치는 동일하다. 다만 신무문의 경우 북쪽 정중앙이 아닌 현재와 같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그려져 있다.

또 대부분 「경복궁도」의 궁성 남쪽 동서 모퉁이에는 십자각(十字閣)과 성상소(城上所)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십자각은 건축물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성상소는 그 기능을 적은 것이다. 성상소는 대상 문헌 중 『경복궁지』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sup>22)</sup> 십자각의 경우 세종 9년(1427)에 철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23)</sup>

20) 1척의 미터 변환은 최성림의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 궁궐조영에 사용된 용척에 관한 연구』에 따라 306mm로 하였다.

21) 경복궁 벌목은 금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부러진 나무도 보고 후에 벨 수 있었다. 『대전통편』, 「형진」, 금제조, ‘空闕松木偷斫者, 不限年邊遠定配.’

22) 『경복궁지』, 古5120-3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3) 『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1427) 3월 기유.

2-2. 주요 전각

대부분 문헌에서 근정전과 함께 근정문, 일화문, 월화문, 홍례문, 영제교, 수각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경복궁도」에도 반영되어 있다.

표 6. 문헌에서 근정전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세종실록 지리지	又其南曰勤政殿【受朝之所】內門曰勤政內東門曰日華東閣樓曰隆文西閣曰隆武永濟橋【在勤政門外】弘禮門【在永濟橋南】
신증동국여지승람	勤政殿【受朝賀正殿也南曰勤政門又其南曰弘禮門東曰日華門西曰月華門弘禮門內有御溝橋曰錦川東西有水閣】
한정지략	勤政殿爲受朝賀之正殿…南曰勤政門又其南曰弘禮門東曰日華門西曰月華門弘禮門內有御溝錦川東西有水閣
동국여지비고	勤政殿【受朝賀正殿南曰勤政門又其南曰弘禮門東曰日華門西曰月華門弘禮之內有御溝橋曰錦川一名永濟東西有水閣】
경복궁지	勤政殿受朝賀正殿也南曰勤政門又其南曰弘禮門東曰日華門西曰月華門弘禮門內有御溝橋曰禁川東西有水閣

그 외 주요 전각들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동궁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어제 궁궐지』에는 전각명인 자선당과 계조당 대신 동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궁궐지』에는 동궁과 함께 자선당이 기록되어 있다. 경복궁 중건 무렵 문헌인 『경복궁지』와 『동국여지비고』에는 자선당과 계조당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경복궁도 13」에는 동궁과 함께 자선당이 표시되어 있고, 「경복궁도 7」, 「경복궁도 8」에는 세자궁과 함께 자선당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계조당이 표시된 「경복궁도」는 없다. 계조당은 세종대 문종의 대리청정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중건 이전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경복궁 중건 당시 주요 전각이 건립된 후인 고종 5년(1868)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복궁 중건 초기 주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계조당은 중건 대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경복궁도」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복궁도」에 그려진 건물 중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경회루, 자선당, 문소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 이후에도 <표 8>과 같이 기우제, 과거시험, 진작례 등의 행사가 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건물의 위치가 확인되고 관리되었다.<sup>24)</sup> 하지만 나머지 건물은 그 위치를

24) 『광해군일기』 권7, 광해 1년(1609) 5월 4일. 『현종실록』 권17, 현종 10년(1669) 9월 29일 기미. 『승정원일기』 1021책, 영조 23년(1747) 9월 19일. 『영조실록』 권108, 영조 43년 3월 10일 갑술.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헌 기록에 따라 해당 건물 위치를 그렸을 것이다.

표 7. 문헌에 기록된 주요 건물 위치

구분	신증동국여지승람	어제 궁궐지	한경지략	동국여지비고
사정전	근정전 북	근정전 북	근정전 북	근정전 북
강녕전	사정전 북	사정전 북	사정전 북	사정전 북
연생전	동소침	동소침	동소침	동소침
경성전	서소침	서소침	서소침	서소침
교태전	강녕전 북	강녕전 북	강녕전 북	강녕전 북
함원전	강녕전 서북	강녕전 서북	-	강녕전 서북
양심당	강녕전 서북	강녕전 서북	-	강녕전 서북
비현합	사정전 동편	사정전 동편	사정전 동	사정전 동편
인지당 자미당 청연루	교태전 동	교태전 동	교태전 동	교태전 동
동궁	일화문 밖	일화문 밖	일화문 안	일화문 밖
계조당	-	-	-	건춘문 안
자선당	-	-25)	-	용문루 남
용문루	근정전 동각루	근정전 동각루	근정전 동서각루	근정전 동각루
용무루	근정전 서각루	근정전 서각루	근정전 동서각루	근정전 서각루
경회루	사정전 서	사정전 서	사정전 서	사정전 서
흠경각	강녕전 서	강녕전 서	강녕전 서	강녕전 서
보루각	경회루 남	경회루 남	경회루 남	경회루 남
동궁	일화문 밖	일화문 밖	일화문 안	일화문 외
문소전	궁성 내 동	궁성 안 동	경복궁 동 건춘문 안	궁성 안 동 건춘문 안
연은전	궁성 안 서북 모퉁이	궁성 안 서북 모퉁이	경복궁 내 서북 모퉁이	궁성 안 서북 모퉁이 신무문 안
선원전	문소전 동북	문소전 동북		문소전 동북

표 8. 중건 이전 경복궁 전각별 왕대별 행사 여부

구분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자선당	경회루	문소전
광해군					○	
인조					○	
효종					○	
현종			○		○	
숙종	○	○			○	○
경종	○					
영조	○	○	○		○	○
정조	○				○	○
순조	○			○	○	○
헌종	○				○	○
철종	○					○
고종						○

『승정원일기』 2251책, 순조 30년(1830) 3월 16일.

25) 『궁궐지』에는 동궁 내용에 자선당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천추전은 문종이 승하한 곳이며, 연은전은 덕종의 혼전으로 영조대 위치를 찾으며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sup>26)</sup>

경복궁 중건 당시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등은 건물 기초가 남아 그것을 헐거나 고쳐서 기단을 쌓았는데, 만춘전과 천추전은 구기(舊基)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다만 천추전 터를 흠경각 가까이에 잡도록 한다.<sup>27)</sup> 이후 홍선대원군은 상량까지 마친 만춘전과 천추전을 각각 연생전과 경성전으로 바꾸고, 사정전 동서의 별전을 만춘전과 천추전으로 이름 붙인다.<sup>28)</sup> 이를 현재 연생전과 경성전의 위치로 가정하면 지금의 만춘전, 천추전이 남향을 한 것과 달리 「경복궁도」에서와 같이 각각 서향과 동향을 한 형태로 발굴을 통해 확인된 조선 전기 유구와 일치한다.<sup>29)</sup> 그러나 「경복궁도」에서 만춘전과 천추전은 강녕전 동서 행각 밖에 위치하며, 이는 중건 이전 상황으로 문헌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경복궁에서 그 위치를 찾지 못한 함원전, 양심당, 비현합, 인지당, 자미당, 청연루 등은 문헌을 바탕으로 그려졌지만 각 「경복궁도」마다 위치에 차이가 있다.

### 2-3. 궐내각사와 후원

#### (1) 궐내각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궐내각사 대부분은 경회루 남, 영추문 동쪽에 위치하며, 전설사(典設司)와 전연사(典涓司)는 홍례문 동서, 오위도총부는 경복궁 동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위치는 대부분 「경복궁도」에 반영되어 있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내사복 위치를 영추문 안으로 적고 있는데, 「경복궁도 1」과 「경복궁도 2」를 제외하고 다른 「경복궁도」에는 경복궁 서북쪽에 내사복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세종 15년(1433) 경회루 북쪽 담장 안에 간의대를 쌓고 사복문(司僕門) 안에 서운관이 직(直)을 서는 건물을 세웠다는 기록에 따라 간의대가 위치한 경회루 북쪽에 내사복을 그린 것이다.<sup>30)</sup>

26) 『승정원일기』 1304책, 영조 46년(1770) 5월 16일.

27) 『(경복궁)영건일기』 권2, 을축년 8월 16일. 千秋殿稍近欽敬閣舊址而修之以取便於行閣之制也.

28) 『(경복궁)영건일기』 권7, 정묘년 4월 21일.

29)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침전지역발굴조사보고서』, 1995.

30)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1433) 7월 임신.

「경북궁도」의 궐내각사 위치를 중건 경북궁과 비교해보면 승정원, 홍문관, 사옹원, 내의원, 내반원 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경북궁도」와 동일하게 경회루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오위도총부 역시 광화문 안 동쪽으로 그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궐내각사 중 중건과 함께 그 위치가 변한 것은 춘추관, 상서원, 사복시 등이 있다. 그중 춘추관은 예문관에 속하였으며, 예문관은 승정원 서쪽에서 근정전 서행각으로, 상서원은 보루각 남쪽에서 근정전 남행각으로, 상의원은 경북궁 동서쪽으로 옮겨갔으며, 내사복은 경북궁 서남쪽에 지어진다.

이외에도 경북궁 밖으로 옮겨지거나 사라진 관청도 있었는데, 승문원, 교서관, 관상감 등은 경북궁 밖에 위치하였으며, 사도시와 전연사는 중건 당시 사라진 관청이었다.

표 9.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증보문헌비고』 궐내각사 위치 비교

구분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승정원	월화문 밖	근정전 서남
홍문관	승정원 서	승정원 서북
상서원	보루각 남	근정전 남
춘추관	상서원 서	예문관에 속함
예문관	승정원 서	근정전 서
승문원	홍례문 밖	궐 밖
교서관	사옹원 남	궐 밖
사옹원	승정원 남	승정원 북
내의원	관상감 남	사옹원 서
상의원	영추문 안	광화문 동남우
내사복	영추문 안	영추문 내
사도시	내의원 남	-
관상감	상의원 남	영추문 밖
내반원	경회루문 서	사옹원 동
전설사	홍례문 동	홍례문 동
전연사	홍례문 서	-
오위도총부	광화문 안 동	시강원

(2) 후원 건물

「경북궁도」에 그려진 후원 건물로는 서현정(序賢亭), 취로정(翠露亭), 관저전(關雉殿), 충순당(忠順堂)과 접송정(接松亭)이 있다. 이 중 접송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지만 「경북궁도 3」, 「경북궁도 4」, 「경북궁도 5」, 「경북궁도 6」, 「경북궁도 7」 등 5점에는 그려져 있다. 『어제 궁궐지』에서 접송정은 후원 건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영조 29년(1753)에 경북궁 접속정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으로 영조 당시 경북궁에 접송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북궁도」에서 접송정은 대부분 후원지(後苑池) 북쪽에 취로정, 서현정, 충순당과 함께 그려져 있으며, 관

저전은 후원지 남쪽에 위치한다. 관저전은 『(경북궁)영건일기』에도 기록된 건물로 고종 3년(1866) 8월 25일 관저전을 상량하였으나,<sup>31)</sup> 상량 이전 터 닦기나 정초, 입주 등의 기록이 없다. 다음 해 2월 2일에는 관저전 등패(等牌)가 경회루 등패에게 담모군을 빌려와 거짓으로 수를 채워 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경북궁 중건 당시 관저전이 경회루 인근에 건설되었으며 상량 이후 전각명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2-4. 천문관련 시설

「경북궁도」에는 여러 천문관측 관련 시설이 표시되어 있는데, 간의대(簡儀臺), 석대(石臺), 일영대(日影臺), 일성의(日星儀), 성의(星儀) 등이 그것이다.

표 10. 「경북궁도」내 천문관련 시설 표시 내용

구분	「경북궁도」 표기명	표시 「경북궁도」
간의대	간의대	1, 2, 3, 4, 5, 6, 7, 8, 9, 10, 11, 13
소간의대	대	1, 2, 4, 5, 6, 8, 11
	석대	3,
	일영대	7, 13
일성정시의	-	10
	일성의	1, 2, 3, 4, 8, 9, 10, 11
	성의	5, 6,
규표	성의당	7
	-	4, 11
-32)	대	1, 2, 3, 4, 5, 6, 8, 10, 11

이중 간의대는 「경북궁도 12」를 제외한 모든 「경북궁도」에 표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간의대는 궁성 서북쪽 모퉁이[宮城西北隅]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간의대는 세종 16년(1433) 경회루 북쪽 담장 안쪽에 처음 지어졌으며, 10년 후인 세종 24년(1442)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대로 궁성 서북 모퉁이로 옮겨졌다. 「경북궁도」에서는 세종 24년에 옮겨진 간의대가 그려졌다. 간의대의 규모는 길이 47척, 너비 32척, 높이 31척으로 난간을 두르고, 꼭대기에 간의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경북궁도 4」와 「경북궁도 11」에는 간의대 옆으로 규표(圭表)가 함께 그려져 있다. 규표 역시 간의대와 함께 세종대 만든 것으로, 그 크기는 길이 128척, 폭 4척

31) 『(경북궁)영건일기』 권5, 고종 2년(1866) 8월 25일.

32) 경회루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경북궁도」에 대(埧)로 표기되어 있거나, 경회루 동쪽 소간의대와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용도 및 역할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5촌으로 간의대 서쪽에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었다. 유득공은 경복궁에서 간의대와 함께 규표를 보았는데, 당시 규표의 형태는 길이 5~6자, 너비 3자의 검은 돌 6개를 이어놓은 모양으로 윗면에 물길이가 있었다고 한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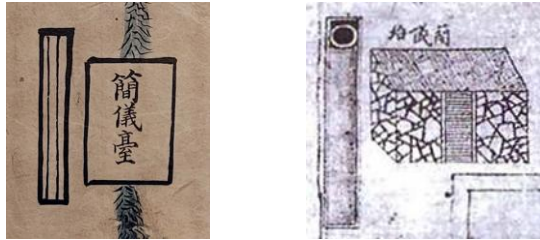


그림 14. 간의대와 규표(<그림 4>, <그림 11> 부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만춘전 동쪽과 천추전 서쪽에 각각 일성정시의와 소간의가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중 소간의는 간의를 간략하게 만든 것으로 「경복궁도」에서 천추전 서쪽으로 그려진 대, 석대, 일영대가 바로 소간의를 두기 위한 소간의대이다. 이 소간의대는 18세기에도 남아 있었는데, 영조 43년(1769년) 황윤석은 경복궁에서 간의대와 첨성대를 보았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중 첨성대가 바로 소간의대이며,<sup>34)</sup> 유득공이 경복궁 근정전 북쪽, 경회루 서쪽에서 본 일영대 역시 소간의대이다.

만춘전 동쪽에 있던 일성정시의는 세종 19년(1437)에 제작된 해시계로 「경복궁도」에서는 일성의(日星儀), 성의(星儀), 성의당(星儀堂)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일성정시의는 소간의대와 달리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중건 당시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대 경복궁 중건 당시에도 간의대와 소간의대는 남아 있었으며, 간의대는 영춘문 지대석, 수문 덮개, 근정전 품계석<sup>35)</sup>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소간의대는 경회루 석축에 사용하였다.<sup>36)</sup>

### 2-5. 영조대 친잠례 관련 시설

영조 43년(1767) 경복궁에서 친잠례가 거행된다. 친잠례를 위해 강녕전 터 동쪽에 흙을 쌓아 제단(祭壇)을

만들고 그 동쪽으로 왕비와 혜빈궁 등의 채상단(採桑壇)이 각각 세워졌다. 이중 제단이 가장 큰 규모로 길이 67척, 너비 37척이었으며, 왕비 채상단은 사방 12척, 혜빈궁 등의 채상단은 사방 8척이었다.<sup>37)</sup> 친잠례 3년 후인 영조 47년(1770)년 영조는 제단에 ‘정해친잠(丁亥親蠶)’이라는 어필 비석을 세웠으며, 「경복궁도」에는 채상단과 함께 정해친잠비가 그려져 있다.<sup>38)</sup>



그림 15. 채상대비와 문소전구기비 (개인소장)

「경복궁도」에서 채상단(採桑壇)은 모두 채상대(採桑臺)로 쓰여 있으며, 일부는 비석 형태로도 그려져 있다.<sup>39)</sup> 친잠례 관련 기록에서는 대부분 채상단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해친잠비를 세운 영조 46년(1770) 봄 경복궁을 방문한 유득공의 글에서 채상대비가 언급되어 있다.<sup>40)</sup> 경복궁 중건 당시 정해친잠비는 인지당 남쪽 비각에 있었으며, 연생전 남쪽으로는 채상대 비가 있다고 한다.<sup>41)</sup> 이와 함께 1960년대 사진에서는 영조 48년(1772)에 문소전 터에 세운 문소전구기비와 함께 채상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 3. 내맥(來脈) 및 수계 시설 비교

「경복궁도」에는 건물과 천문 관련 시설 외에도 내맥과 수로, 수문 등이 그려져 있으나 이러한 지형과 구계 시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내맥과 수계시설을 경복궁 중건 당시 기록인 『(경복궁)영건일기』를 살펴보고 기록 하겠다.

33) 유득공, 앞의 글.  
“...臺西有蠶石六長可五六尺廣三尺連鑿水道臺下之石如硯如榻如缺櫃其制不可考也...”.

34) 정연식, 「조선시대 관천대와 일영대의 연혁」, 『한국문화』 Vol.51, 20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71쪽.

35) 『(경복궁)영건일기』 권2, 을축년 7월 16일.  
『(경복궁)영건일기』 권4, 병인년 1월 14일.  
『(경복궁)영건일기』 권8, 정묘년 10월 9일.

36) 『(경복궁)영건일기』 권2, 을축년 7월 6일.

37) 『친잠의례』 의주절(儀註秩).

38) 「경복궁도 12」를 제외한 모든 「경복궁도」에 표시되어 있다.

39) 채상대는 「경복궁도 4」에서 비석의 모습을 하고 있다.

40) 유득공, 앞의 글.  
“西南行有採桑臺碑丁亥親蠶所也...”.

41) 『(경복궁)영건일기』 권4, 고종 3년 2월 7일.

## 3-1. 내맥

백악산에서 경복궁으로 내려오는 내맥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경복궁 주맥으로 보호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도 이러한 보호는 계속되었다.<sup>42)</sup> 그러나 이러한 내맥의 보호는 경복궁 궁성 내부보다 경복궁 북쪽부터 백악산 사이가 대상이었다. 『(경복궁)영건일기』에 내맥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上苑牆外三麓一爲神武門後麓一爲交泰殿後麓一爲文昭殿後麓累百年緣路抗陷矣…<sup>43)</sup>

이에 따르면 상원 담장 밖 3개의 산록이 있으며, 이는 신무문, 교태전, 문소전 뒤로 내려오며, 이 산록 외에 간의대에도 산록이 있었으나 여기에서 나온 황토를 각 처소에 사용하여 평지가 되었다고 한다.<sup>44)</sup> 이를 정리하면 경복궁 내맥은 4곳으로 서쪽부터 간의대, 신무문, 교태전, 문소전 뒤에 위치하였다.

「경복궁도」에도 이러한 내맥이 표현되어 있는데, 『(경복궁)영건일기』 기록과 같이 4개 내맥이 그려진 것은 「경복궁도 2」, 「경복궁도 3」, 「경복궁도 4」, 「경복궁도 5」, 「경복궁도 8」이며, 특히 「경복궁도 8」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내맥은 궁성 내부에서 교태전과 문소전 내맥으로 나뉘는데, 이 내맥의 시작점에 주룡(主龍)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16. 4개의 내맥이 표시된 「경복궁도」(<그림 4>, <그림 5> 부분)

이러한 내맥이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 내 별목을 금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영건일기』에 내맥과 관련한 기록은 경복궁 중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후로 경복궁 내부 청소와 준천을 마쳐 연못과 초석, 구기 등이 났으며, 이와 함께 내맥 역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45)</sup>

42) 『승정원일기』 278책, 숙종 6년 윤8월 8일  
『승정원일기』 1244책, 영조 41년 6월 15일.

43)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5월 3일.

44) 『(경복궁)영건일기』 권7, 고종 4년 4월 25일  
“簡儀臺一麓皆正黃土凡役處所用眞土則皆取此麓至是低了三四尺矣”.

45)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4월 25일.

이처럼 「경복궁도」의 내맥은 중건 이후 실제 경복궁 내부 지형을 확인한 후 그려진 것이다.

## 3-2. 수계시설

## (1) 수문, 수로, 다리

경복궁에는 여러 개의 수문이 있으며, 이 수문을 통해 들어온 물은 수로를 지나 수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간다. 이러한 수문과 수로는 영조대 여러 차례 준천하였는데, 영조 11년(1735)에는 신무문 동쪽 2개의 수문을 찾아 모래로 막힌 것을 뚫었으며, 내부 수로도 준천하였다.<sup>46)</sup> 25년 후인 영조 36년(1760)에는 경복궁을 준천하고 그 수문과 수로를 『준천사실(濬川事實)』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景福宮內之水由北御橋西南流者入於橋之東北…與大隱巖下流之從景福宮西禁橋合慶會池水過禁川橋東南出南禁橋者會爲中學橋南流爲惠政橋入於毛塵橋西…<sup>47)</sup>

대은암에서 발원한 물은 경복궁 서쪽의 서금교(西禁橋)를 지나 궁성 내로 들어와 경회지 물과 합하여 금천교 동남쪽 궁성 밖에 있는 남금교(南禁橋)를 지나 중학교(中學橋)에서 중학천과 만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수로는 경복궁 서남쪽 밖으로 나가 북어교(北御橋)를 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수문보다는 궁성 밖에 있는 다리를 통해 경복궁 수문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준천사실』에는 영조 11년에 뚫은 신무문 동쪽 수문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사이 궁성 북쪽 수문은 잊힌 것으로 보인다.<sup>48)</sup>

경복궁 중건 당시 영조 11년에 정비된 신무문 동쪽 2개의 수문과 『준천사실』에 기록된 3개의 수문, 건춘문 북쪽 암거 형태의 수문까지 총 6개의 수문이 정비된다. 신무문 동쪽 2개의 수문 중 첫 번째 수문은 후원지 서쪽을 지나 흥복전 서쪽, 경회루 북쪽에 이르러 물길이나뉘어져 하나는 경회지를 채우고, 하나는 서쪽 금천으로 연결된다.

첫 번째 수문 동쪽에 있는 두 번째 수문에서 들어온 물은 선원전 서쪽에 이르러 은구(隱溝)가 되었다가 만경전 동편 나인간의 은구를 받아 건춘문 북쪽 수문으로 나간다.

46) 『승정원일기』 801책, 영조 11년 5월 11일.

47) 『준천사실(濬川事實)』, 규157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8)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윤5월 5일  
“文昭殿後穿溝得舊水道”.



영추문 북쪽 수문은 궁성 밖 서금교(西禁橋)<sup>49)</sup> 물이 들어와 영제교를 거쳐 광화문 동쪽 수문으로 나간다. 기린평<sup>50)</sup> 지당의 물과 사복시 은구의 물은 광화문 서쪽 수문으로 나간다.

「경복궁도」에 표시된 수문과 수로는 『(경복궁)영건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신무문 동쪽 첫 번째 수문으로 들어오는 물이 후원지와 경회지로 연결되는 모습에 차이가 있는데, 『(경복궁)영건일기』에서 수로는 후원지, 경회지 등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경복궁도」에서는 수로가 직접 연못에 연결된 형태로 그려져 있다.

또 수로와 궐내각사의 관계에서 실제와 차이를 보이는데, 실제 수로는 경회루와 궐내각사의 서쪽을 지나 동쪽으로 꺾여 궐내각사를 감싸고 도는데, 일부 「경복궁도」에서는 수로가 궐내각사를 가로지르거나 궐내각사가 수로 서편에 위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로 서쪽으로는 궁장과 인접하여 궐내각사가 있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sup>51)</sup> 중건 경복궁에서도 수로 서쪽으로는 초관직소, 훈국군영직소 등 군문의 직소(直所)만이 있다.

「경복궁도」 중 수로가 궐내각사 서남을 감싸고 도는 것은 「경복궁도 1」, 「경복궁도 3」, 「경복궁도 4」 등으로 해당 그림은 실제 경복궁 수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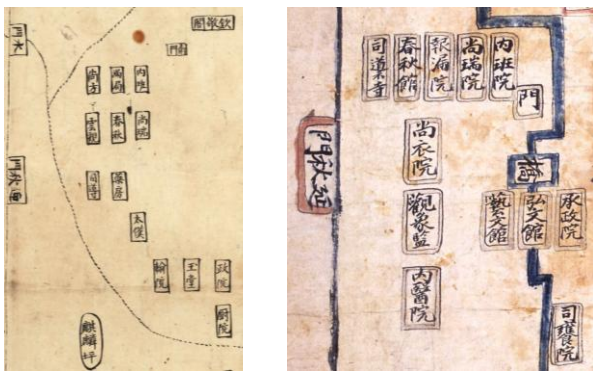


그림 17. 수로와 궐내각사 관계  
(좌: 「경복궁도 1」, 우: 「경복궁도 5」)

「경복궁도」 수로에는 다리가 여럿 표기되어 있다. 근정문과 홍례문 사이로 禁川橋 또는 錦川橋로 표시된 영제교가 있다.<sup>52)</sup> 「경복궁도 4」에서 영제교 모서리에는

49) 『준천사실』에 서금교로 기록된 다리로 이후 음차되어 썩은 다리로 불리었으며 한자로 후교(朽橋)로 표시하였다고 『(경복궁)영건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50) 경복궁 궁장 내 서남쪽으로 사복시가 위치한 곳이다.

51) 실제 수로와 궁성 간의 거리는 50m 남짓이다.

52) 영제(永濟)라는 이름은 세종 8년(1426)에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이후 그 이름이 잊혀진 것으로 보인다.

구(龜)가 쓰여 있으며, 「경복궁도 8」 영제교 좌우 수각의 동서로 석구(石龜)가 쓰여 있다. 이것은 『춘성유기』에는 천록(天祿), 『(경복궁)영건일기』에는 팔하석(蚺蟻石)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경복궁 중건 초기 4개 중 한 개를 남별궁에서 다시 경복궁으로 옮겨왔다.<sup>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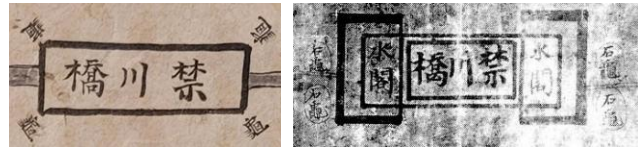


그림 18. 금천교 사방의 구(龜) 그림 19. 금천교 사방의 석구(石龜)  
(<그림 4> 부분) (<그림 8> 부분)

영제교 외에도 영제교 동쪽과 영추문 동쪽, 후원지 남쪽 수로에도 다리가 표시되어 있는데,<sup>54)</sup> 이중 영추문 동쪽 다리는 경복궁 중건 당시 발견한 것으로 「경복궁도 5」와 「경복궁도 6」에서 해당 다리가 그려져 있다.



그림 20. 영추문 내 다리(좌측부터 <그림 5>, <그림 6> 부분)

## (2) 경회지

경회지는 경회루가 위치한 연못으로 현재는 경회루가 있는 큰 섬과 그 섬으로 갈 수 있는 3개의 다리, 경회루 서쪽으로 직사각형의 섬 2개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복궁도」 대부분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

현재 경회루로 가는 다리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으나, 「경복궁도 1」, 「경복궁도 3」, 「경복궁도 4」에는 남쪽과 중간 다리 간격보다 중간 다리와 북쪽 다리의 간격이 더 넓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영조대 경복궁의 행사를 그린 「경복궁 행사도」에서도 확인되어 중건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1. 다리 3개가 표현된 경회루  
(좌측부터 <그림 1>, <그림 3>, <그림 4> 부분)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1426) 10월 병술.

53)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5월 4일.

54) 서술의 편의상 각각 동 금천교, 서 금천교, 후원 금천교로 칭한다.



그림 22. 「경복궁행사도」 부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4) 후원지와 농경지

세조 2년(1456) 경복궁 후원에 취로정을 짓고 옆에 못을 파 연꽃을 키웠다.<sup>55)</sup> 세조 5년(1459)에는 취로정 인근 논에 벼를 키웠으며,<sup>56)</sup> 중종대에는 문소전 주변을 비롯하여 궁궐 곳곳 빈 땅을 경작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sup>57)</sup>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에도 곳곳을 경작하였는데, 정조대에는 광화문 안으로 농사를 지어 거둬들이는 길이 침범되거나 흙이 묻어 섬들을 더럽히기도 하였으며,<sup>58)</sup> 유득공은 채상대 북쪽으로 내농포로 쓰이는 못이 있었다고 하였다.

「경복궁도」에서 이러한 후원지와 농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조대 기록과 같이 후원지 옆으로 정자가 그려져 있거나, 「경복궁도 1」, 「경복궁도 3」, 「경복궁도 4」에는 후원지 또는 후원지 남쪽에 답(畓)이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경복궁도」 곳곳에 농경지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채상대 북쪽에 위치한 문소전 인근에 못(池)이나 사각 구획은 『중종실록』과 「춘성유기」 등에 기록된 내농포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작지들은 중건 이전까지 남아 있었으며,<sup>59)</sup> 중건 중에는 후원지 남쪽 밭을 고양 용두동 백성이 500 배미[夜味]의 논으로 만들어 벼를 심고, 가을에 수확하여 대내에 바치기도 하였다. 이 논은 공사가 마무리되던 고종 3년(1867)에 세답방이 지어지며 없어졌다.<sup>60)</sup>

후원지 남쪽 논 외에도 경복궁 내 27곳에 내농포와 남채전이 있었는데, 한성부에 명하여 경복궁 밖으로 옮

기도록 하였다.<sup>61)</sup>

후원지 역시 중건과 함께 정비되는데 그 둘레는 140 칸으로 연못 안쪽으로 섬이 있었다.<sup>62)</sup> 이러한 섬은 「경복궁도 3」과 「경복궁도 4」에서도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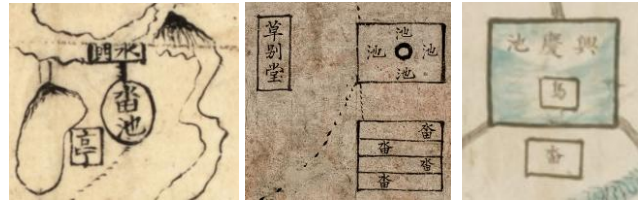


그림 23. 후원지 부근 논(좌측부터 <그림 1>, <그림 3>, <그림 4>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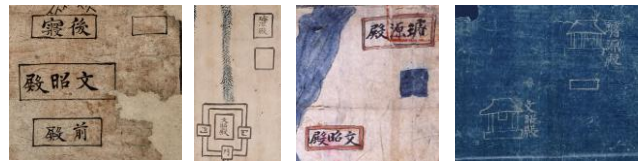


그림 24. 문소전 인근 추정 경작지(<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부분)

(5) 우물

「경복궁도 8」에는 정(井)자가 표시된 원이 천추전 남쪽, 함원전 남쪽, 간의대 남쪽에 있으며, 「경복궁도 1」에는 우물로 추정되는 원형이 천추전 서쪽과 문소전 서쪽에 각 2개, 함원전 북쪽, 간의대 남쪽, 교태전 북쪽으로 각 1개 등 총 14곳에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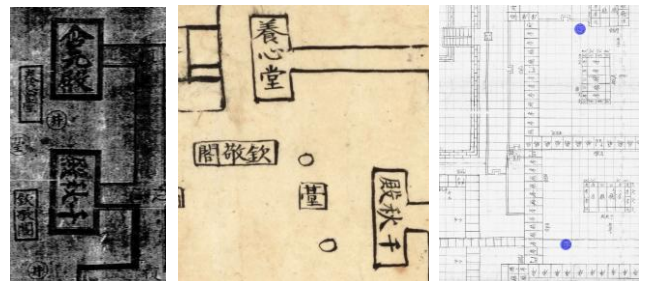


그림 25. 우물 관련 표시(「경복궁도 1」, 「경복궁도 8」, 「복궐도형」)

경복궁 중건 당시 이전에 있던 우물 10개를 찾았으며,<sup>63)</sup> 「복궐도형」에는 후원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우물이 표시되어 있다. 「경복궁도」와 「복궐도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위치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55)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5일 갑술.

56)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4월 22일 계유.

57)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3월 14일 정축.

58) 『일성록』 정조 10년 1월 22일 정묘.

59) 『승정원일기』 2673책, 고종 1년 2월 29일 경자.

60) 『(경복궁)영건일기』 권2, 고종 2년 8월 3일.

『(경복궁)영건일기』 권4, 고종 3년 3월 6일.

『(경복궁)영건일기』 권5, 고종 3년 8월 12일.

61) 『(경복궁)영건일기』 권2, 고종 2년 7월 19일.

62) 『(경복궁)영건일기』 권7, 고종 4년 4월 26일.

63)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5월 13일.

4. 경복궁 중건 관련 기록

「경복궁도 1」과 「경복궁도 12」에는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중건 이후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서로 달라 그 제작 목적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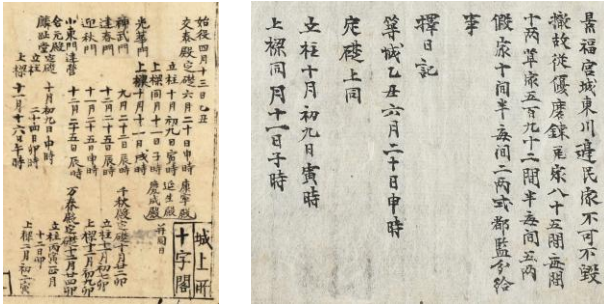


그림 26. 중건 관련 내용(「경복궁도 1」, 「경복궁도 12」부분)

표 11. 「경복궁도 1」영건일과 실제 영건일 비교

전각명	구분	영건일	일치 여부	택일 날짜
-	지역	4월 13일 을축	○	4월 6일
교태전	정초	6월 20일 신시	○	4월 27일
	입주	10월 9일 인시	○	
	상량	동월 11일 자시	○	
광화문	상량	10월 11일 술시	○	5월 2일
신무문	상량	9월 22일 진시	○	
건춘문	상량	12월 25일 진시	○	
영추문	상량	11월 25일 신시	○	
소동문	간영	12월 25일 진시	○	
함원전 인지당	정초	10월 9일 신시	△	
	입주	10월 24일 묘시	○	
	상량	11월 16일 오시	○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정초	교태전과 동일 <sup>64)</sup>	○	6월 16일
	입주		○	
	상량		○	
천추전	정초	10월 22일 묘시	○	9월 6일
	입주	11월 7일 묘시	○	
	상량	12월 9일 묘시	○	
만춘전	정초	12월 24일 묘시	○	9월 6일
	입주	병인 1월 12일 묘시	기록없음	
	상량	병인 2월 2일 인시	○	

「경복궁도 1」에는 영건을 시작한 날짜 및 궁성과 주요 전각의 정초, 입주, 상량일 등이 쓰여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이는 『(경복궁)영건일기』의 실제 영건일과 거의 일치하며,<sup>65)</sup> 이에 따라 「경복궁도 1」의 제작 시기를 만춘전 상량 이전인 고종 3년(1866)

64)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은 교태전 아래 쓰여있으며, 실제 교태전 영건일과 일치한다.

65) 함원전과 인지당 정초일은 10월 9일이지만 『(경복궁)영건일기』에서는 해당 날짜에는 함원전 정초만이 쓰여있는데, 이것은 인지당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2월 2일을 상한으로 보기도 한다.<sup>66)</sup>

그러나 실록에서는 만춘전 상량일 전 영건 길일을 정한 자미당(紫微堂)이 내용에서 빠져있는데, 『(경복궁)영건일기』에서는 자미당 영건 길일을 고종 2년(1865) 10월 26일에 정했으며, 이후 12월 3일까지 정초, 입주, 상량을 진행하였다.<sup>67)</sup> 그러나 「경복궁도 1」에는 자미당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미당 영건일이 정해지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는 교태전과 궁문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의 정초가 시작되기로 경복궁을 청소하고 내맥과 수로, 연못 등을 정비하는 경복궁 중건의 준비단계였다.

「경복궁도 12」에는 경복궁성 동천변 민가를 훼손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과 영건 길일을 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중건 당시 고종이 처음 경복궁을 찾았을 때 성저 민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도록 명하는데, 이후 성저 민가를 훼손하는 보상비로 초가는 매 칸 3냥씩, 가가는 2냥씩을 지급하도록 하며,<sup>68)</sup> 이후 훼손된 민가에 살던 백성들을 함춘원 담장 밖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경복궁도 12」에 해당하는 민가는 동성 천변 민가로 고종 2년(1865) 4월 28일에 집값을 지급하도록 하였다.<sup>69)</sup>

다음으로 축성 길일과 전각명 없이 정초, 입주, 상량일만 쓰여있다. 우선 축성일을 정한 것은 고종 2년(1865) 4월 27일이며, 영건 길일은 교태전과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과 같은데, 교태전 영건 길일을 정한 것이 축성일을 정한 것과 같은 날인 4월 27일이다.

4월 27일은 경복궁 영건도감에서 전각지 정비를 마치고 교태전 영건 길일을 올린 날로 다음 날인 28일에는 동성 천변의 민가 훼손과 관련된 계를 올렸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았을 때 「경복궁도 12」 역시 「경복궁도 1」과 마찬가지로 경복궁 중건 초기인 고종 2년(1865) 4월 28일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건 경복궁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경복궁도」 내 지명에서도 확인된다. 「경복궁도 1」과 「경복궁도 2」에서 경복궁 남서쪽에 기린평(麒麟坪)이 적혀있는데, 기린평은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복궁)영건일기』에서 유일하게 등장한다.

『(경복궁)영건일기』에서 기린평은 두 차례 등장하는

66) 이규철, 「고종 중건과 대한제국 말기까지의 변화 고찰」, 『경복궁 변천사 상(上)』, 문화재청, 47~52쪽, 2007.

67) 『(경복궁)영건일기』 권2, 고종 2년 10월 26일.

68)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4월 12일.

69)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4월 28일.

## 62 논문

데, 첫 번째는 경복궁 수문과 관련하여 기린평 연못 물과 사복시 은구의 물이 광화문 서쪽 수문으로 나간다는 것이며,<sup>70)</sup> 두 번째는 사복시를 서십자각 안의 기린평에 설치하였다는 내용이다.<sup>71)</sup>

이처럼 『(경복궁)영건일기』에서 기린평은 경복궁 남서쪽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으며, 「경복궁도 1」과 「경복궁도 2」와 일치한다.

### 5. 결론

「경복궁도」 중 「경복궁도 1」과 「경복궁도 12」는 중건 관련 기록이 있어 중건 당시 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복궁도 2」는 「경복궁도 1」과 같이 궁성 규모를 문헌이 아닌 실제 경복궁 크기를 반영하여 장(丈)으로 표기하고, 꺾내각사 명칭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쓰고 있어 「경복궁도 1」을 모본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도 3」, 「경복궁도 4」, 「경복궁도 5」, 「경복궁도 6」, 「경복궁도 7」, 「경복궁도 8」은 궁성의 규모를 척(尺)으로 쓰고 있지만 역시 문헌이 아닌 실제 크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경복궁도 7」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복궁도 12」와 동일한 치수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경복궁도」 중 「경복궁도 3」은 『신증동국승람』의 내용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추가로 건물별 기능을 기입하였다. 이와 함께 내맥과 수문, 수로, 우물 등 역시 중건 당시 경복궁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그려졌다.

표 12. 「경복궁도」의 중건 관련 추정 내용 일치 여부

번호	중건 기록	규모 표시 방법	4개의 내맥	신무문 동쪽 2개 수문	기린평
1	○		○		○
2	△		○		○
3		○	○	○	
4		○	○		
5		○	○		
6		○			
7		○	○		
8		○	○	○	
9				○	
10					
11		○			
12	○				

70) 『(경복궁)영건일기』 권4, 고종 3년 3월 24일.

71) 『(경복궁)영건일기』 권7, 고종 4년 3월 24일.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경복궁도」 중 「경복궁도 10」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복궁도」에는 중건 관련 기록과 증건으로 정비되기 이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4개의 내맥, 신무문 동쪽 2개의 수문 등이 표현되어 있어 경복궁 증건을 시작하고 내부 시설이 정비될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복궁도」는 중건 당시 조선 전기 경복궁의 건물 구성 및 배치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복궁도」와 문헌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조선 전기 경복궁 모습이 증건 경복궁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복지』
- 『국조오례의』
- 『궁궐지(宮闕志)』
- 『동국여지비고』
- 『승정원일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어제 궁궐지』
- 『(경복궁)영건일기』
- 『조선왕조실록』
- 『준천사실』
- 『한경지략』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궁장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민병희, 『조선전기 천문관측기기와 역법의 연구』, 충북 대학원 대학원, 2016.
- 이규철, 「고종 증건과 대한제국 말기까지의 변화 고찰」, 『경복궁 변천사 상(上)』, 문화재청, 2007.
- 이강근, 『경복궁에 관한 건축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83.
-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1998.
-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2000.
- 한동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경복궁도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접수(2023.05.24.)

수정(2023.07.19.)

게재확정(2023.08.07.)